

건축학(5년제)과 건축사 자격제도의 정립

Adjustment of Architecture Education(5years) and
registered architects qualification system



김형우 | Kim, Hyung-woo
홍익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약력

-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학사, 석사, 박사)
-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 프랑스 파리-빌렝 건축대학원
- 대한건축학회 작품상 수상

밀레니엄으로 새천년을 맞이해 분주하였던, 새로운 천년의 희망과 경이로운 진전을 가져올 기대로 부풀었던 새로운 세기의 10년을 보냈다. 최근의 경기 타인지 정말 조용한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고속성장의 건설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물량 위주의 건설 과정을 겪어온 관행들을 숙고하여, 다가올 새로운 10년을 맞는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

세계무역통상협약(WTO)에 대비해 건축학 5년제가 시작되어, 미국의 건축학교육인증원(NAAB)시스템을 적용한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의 발족을 보았고, 미국의 건축학교육인증원의 인증 심사를 통과한 서울대, 서울시립대, 명지대 등이 5년이 지나 올해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의 인증심사를 받게 된다. 건축학과가 있는 대학마다, 건축교육의 목표와 내용, 교수진의 확보(대부분 국제적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 석사 이상의 조건), 시설의 확보, 졸업학점의 증가(160~170학점)를 위한 노력들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평생을 학교생활을 하는 교육자로서 최근의 교육개선의 성과들은 놀랄만하다. 소위 일부에 머물러 있던 건축교육 선진화와 국제화의 성과들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선진 외국에서 교육과 실무를 마친 교수들이 대폭 충원되어 교육 일선에서 새로운 건축 교육의 토양에 새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실무업계에서의 준비과정은 어떠했는지 되묻고 싶다. 건축사 등록원의 설립과 매년 3,000명씩 배출되는 건축학도들의 건축 인턴십(IDP)제도의 건축사사무소에서의 적용은 아직 미미하다. 건축학 5년제를 마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소정(3년추정)의 인턴십 과정을 마친 건축인들이 새로운 제도의 건축사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조속한 법제적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최근 들어 건축학 5년제 교육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마치 잘못 만들어진 제도로 반드시 고쳐야만 할 교육제도 탓을 하고 있는데, 이것의 첫 번째 쟁점은 새로운 건축사 자격시험 제도를 적용 한 해보지 않은 채 미루고 있는 기득권 계층의 횡포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또한 국내 건축 설계 시장의 현황에 미루어 발주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상위 50개 건축사사무소가 설계매출의 35%(추정)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취업대상의 건축사사무소는 매

우 한정적이다. 2009년까지 배출된 건축사 자격자는 17,041명으로 이중 10,590명이 등록 건축사로 활동하고 있다. 1996년에서 2000년을 맞을 때까지 1,000명대의 합격자를 매년 배출 하였는데 당시, 약 5,375명의 건축사가 늘어났고, 그 이후 매년 642명(2001년), 468명(2002년), 467명(2003년), 421명(2004년), 193명(2005년), 502명(2006년), 200명(2007년), 377명(2008년), 454명(2009년)로 감소하여 대략 450~460명 대를 물리적으로 유지하는 인상이 짙다.

건축사 자격 수험제도에도 건축학원의 학원과의 차이가 없는 시대가 와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교육계와 실무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의과대학의 정원을 인턴수와 연계하여 제한하듯, 인턴십을 수행 할 수 있는 건축사사무소의 수용능력과 수행지침에 대한 연구와 토론의 과정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국내 건축 설계 시장이 각박하게 된 것은 최근의 민간 건설 부문의 위축에도 기인하지만, 대형 건설사의 공동주택의 건설에 따른 편익률적인 단위평면 짜맞추기식 주동평면과 고층화에서 비롯된다. 3,000세대의 아파트 단지 설계가 한 건의 사업승인으로 처리되며, 1,500세대 또는 15개동 이상 일 때 주동 형식이 4~5형이면 되는 현행의 공동주택 디자인 다양화의 기준은 너무 느슨하다.

주거 건축의 활성화를 위해선 100세대(또는 주동)마다 건축사를 달리하여 설계의 진면목을 대중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또한, 선진 설계 교육을 받고 국제적 건축사를 취득하고 있는 젊은 인재들에게 한국건축사를 취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제도권에 영입하여, 세계적 명품이 되는 아파트를 건축하여야 할 것이다. 최종 설계 발주에서 턴키와 비티엘의 폐해를 해소하고 관·산·학이 어우러지는 기획, 실행, 연구 등의 설계 기반들이 굳건하게 자리 잡기를 밀레니엄 두 번째 10년에 걸어본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 산업체, 학계 등에도 건축사를 가진 실무자들이 협의해 가는 선진시대로 접어들어야 할 것이다. 건설풍요기에 버려왔던 건축관련 분야의 업역 확보와 전문분야의 세분화로 새로운 건축사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또한 건축학교육(5년제)이 자리 잡도록 건축사 자격 시험제도의 새로운 진입을 권고해 본다. ■